

필사본 『雲川先祖遺墨』의 발굴과 書誌的 分析

A Bibliographic Analysis and Excavation of Hand-Written *UnChunsunjoyoumook*

全 在 東 (Jun, Jae-Dong)*

◁ 목 차 ▷

- | | |
|-----------------|-----------------|
| 1. 序 論 | 4. 『유목』의 가치와 활용 |
| 2. 『유목』의 구성과 체재 | 5. 결 론 |
| 3. 『유목』의 원문 대조 | <참고문헌> |

< 초 록 >

이 논문은 대구에 거주하는 개인이 소장한 필사본 遺墨帖을 소개하고 서지적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첩(이하 『유목』)은 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선후기의 학자 金涌(1557-1620)과 관련된 簡札 10통, 分財記 1통, 疏 1통, 漢詩 18수, 祭文 3편, 편액 1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김용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간찰 10통, 분재기 1통, 疏 1편, 한시 4수 등 총 16건이다. 나머지 자료는 김용의 후손들이 작성한 한시와 제문 등이다. 본문에서는 이들 중 주요 자료를 대상으로 원문을 탈초하고, 내용을 분석하였다. 둘째, 『유목』에 수록된 자료 중 1595년에 費齋諸人에게 보낸 간찰, 金澤龍에게 보낸 漢詩, 아들 金是柱에게 보낸 漢詩, 아들 金是樞를 추모하며 지은 제문, 朴守謙에게 보낸 한시 등은 『雲川集』에 수록되어 있어 두 자료를 대조, 비교하였다. 그 결과 『유목』에 수록된 자료는 『雲川集』의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유목』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유목』에 수록된 자료 중 2책에 수록된 車天輅의 白雲亭八景 및 十二詠는 차천로가 시단에서 갖는 위상과 의성김씨 내앞 문중에서 백운정의 지니는 의미 등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지학은 물론 한문학 등의 분야에서 보다 정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要語: 金涌, 義城金氏, 『雲川先祖遺墨』, 金誠一, 金守一, 白雲亭, 八景詩, 車天輅, 朴守謙

< ABSTRACT >

This paper introduces the manuscript book by individuals living in Daegu and attempts a bibliographic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concubine consists of two books, one related to the late Joseon scholar Kim Yong (1557-1620) writings are included, Letter 10, Bunjaegi 1, Administrative document 1, Administrative document 18 and so on. The rest of the material is written by Kim Yong's descendants, including poems and sentences. The data that Kim Yong himself wrote were analyzed by attaching images and removing the original. Second, the poems that Kim Yong sent to his friend Park Soo Gum, his mourning for his son's death, and his letters to his classmates can be compared with his personal writings. As a result, the previous book has gained credibility because the contents of the two documents are consistent. Third, Chacheon-ro's poems from the previous books are of great value in view of his popularity and position in paragraphs. Third, Chacheon-ro's poems from the previous books are of great value in view of his popularity and position in paragraphs. In addition, considering the status of Bae Un-jung (白雲亭) in Ui Sung-Kim's Family, his poetry needs much research in the future.

Key words: Kim Young, Clan Euseong, *UnChunsunjoyoumook*, Kim Sung Ill, Kim Soo Ill, Baekunjung, Eight views in chinese poetry, Cha Chun Ro, Park Soo Gyun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BK+21사업팀 박사후연구원(auto4756@hanmail.net)

투고일: 2019년 11월 19일 최초심사일: 2019년 11월 29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8일
서지학연구, 제80집, 219-238, 2019. <https://doi.org/10.17258/jib.2019..80.219>

1. 序 論

본고는 제목 미상의 筆寫本 遺墨帖을 소개하고 서지적 분석을 시도하기 위한 것이다.¹⁾ 이 책은 표제가 없이 折帖 형태로 제본되어 있으며, 조선후기의 학자 金涌(1557-1620)과 관련된 簡札, 漢詩, 祭文, 明文 등을 수습하여 楷接하였다. 이 책의 개략적인 서지사항은 아래와 같다.

서명 : 『雲川先祖遺墨』(가제, 이하 『유묵』)

편자 : 金秉國

형태 : 필사본, 折帖 2책; 43.6×29.2; 43.1×29.4, 字數不定, 楮紙

편찬시기 : 20세기(2책 협주 “檀君紀元四千二百九十年丁酉五月七日”에 의거)

주기사항 : 1책(16장), 2책(6장), 표지를 후대에 개장, 漢字

인용한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유묵』은 총 2책(2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세기 자료를 20세기에 정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묵』의 주인공 金涌의 전기를 살펴보면, 그의 본관은 의성이며, 淸溪 金璉(1500-1580)의 손자이자 金守一(1528-1583)의 아들이다. 그는 34세가 되던 1590년에 增廣文科에 급제하였으나, 2년 뒤 임진왜란을 만났다. 당시에 그는 동생 金澈과 의병을 일으켰으며, 정유재란이 발발했을 때에는 諸道體察使 李元翼(1547-1634)의 從事官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이후 『宣祖實錄』의 편수에 참여하였으며, 1619년 뒤에는 안동 임하현으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임종하였다.²⁾

지금까지 알려진 金涌이 남긴 자료는 『雲川先祖扈從日記』(필사본 3책, 보물 제484호)와 『雲川先祖經筵奏對』(필사본 3책)가 있다. 전자는 金涌이 1593년 8월부터 1594년 6월까지 선조 임금의 의주로 호위하며 작성한 것이며, 후자는 1615년 윤8월 6일부터 다음해 6월 18일까지 경연에서 군주와 신하가 문답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두 책은 모두 조선 조정의 임진왜란에 대한 대응 및 극복 과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조선시대 義城金氏家の 학문은 金安國(1478-1543)과 金正國(1485-1541) 형제를 필두로 안동 내앞[川前] 入鄉祖 金萬謹과 그의 손자 金璉, 그리고 金進의 다섯 아들(金克一·金守一·金明一·金誠一·金復一)에 이르러 무르익었다고 평가된다. 조선시대 金進을 비롯한 다섯 아들을 배출한 내앞 의성김씨가는 ‘五子登科宅’이라 칭송받기도 하였으며, 다섯 형제는 ‘義城金氏五龍’으로 불리기도 했다.³⁾ 하지만 이들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金誠一(1538-1593)⁴⁾에게 편중되어 있으며, 金克一⁵⁾·金復一⁶⁾에 관한 것이 일부 산견될 따름이다.⁷⁾

1) 이 책은 대구에 거주하는 개인소장가가 일본의 고서수집가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인용.

3)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http://www.ugyo.net/>) “의성김씨청계종택”에서 인용.

4) 金성일의 학문에 대한 연구 성과는 실로 車載斗量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 『열상고전연구』 67집(2019. 2)의 심경호, 하우봉, 장진엽의 논문 및 참고문헌이 주목되므로 본고에서 다 열거하지 않는다.

본고의 검토 대상인 『유묵』은 학계에 처음 소개되는 자료이다. 『유묵』의 편자 김병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알 수 없다. 다만, 『유묵』 2책의 협주에 “雲川先生十一代孫”이라 한 점으로 미루어, 義城金氏 龜峯派 후손임을 알 수 있다.⁸⁾ 김용이 남긴 글은 1694년경부터 玄孫 金昌錫, 金世鎬 등에 의해 유고의 편찬이 진행되었으며, 1898년에 목판으로 중간되었다.⁹⁾ 또 의성김씨 내앞 문중의 대표 인물들의 문집을 수록한 『聯芳世稿』¹⁰⁾가 최근에 국역되어 김용의 학문을 일반인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첫째, 『유묵』에 수록된 자료의 소개를 검하여 원문 탈초 및 분석을 시도하고, 둘째, 『유묵』과 문집의 원문을 대조하여 『유묵』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유묵』의 가치 및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김용의 학문에 대해 그 실상을 온전하게 구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유묵』의 구성과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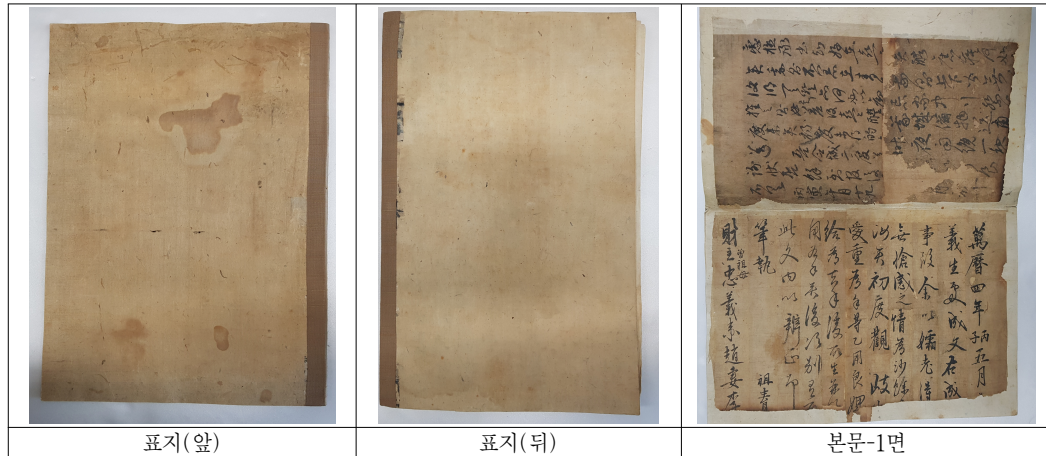
『유묵』은 1책에 簡札 2통, 明文 1편, 疏 1편, 簡札 1통, 漢詩(五言律詩) 2수, 簡札 5통, 祭文 1편, 漢詩(七言律詩) 2수, 簡札 2통, 祭文 1편, 挽詩 2수, 扁額 1편, 挽詩 2수, 祭文 1편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책은 白雲亭의 勝景을 노래한 七言絶句 8수와 五言律詩 12수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에 사용된 언어는 한자이며, 서체는 行書가 주류를 이루고 簡札 대부분과 한시 일부는 草書이다. 『유묵』의 수록 내용을 크기, 작성연도, 발/수급자, 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5) 신두환, “약봉(藥峯) 김극일(金克一)의 『임하이십육영(臨河二十六詠)』 연구(研究),” 『한국한문학연구』 54(2014).
- 오용원, “약봉(藥峯) 김극일(金克一)의 문예의식(文藝意識)과 시세계(詩世界),” 『퇴계학과 유교문화』 29(2001).
- 6) 김준동, “醴泉 義城金氏 南嶽宗宅 소장 古文獻의 서지적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8).
- 김영시, “남악(南嶽) 김복일선생(金復一先生)의 생애(生涯)와 선비정신,” 『東洋禮學』 22(2009).
- 7) 아울러 의성김씨 귀봉파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증한 고문서 300여 점 및 『운천선조호종일기』, 『운천선조경연주대』의 간략 해제(일부 자료는 이미지 포함)가 유교넷(<http://www.ugyo.net/>)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 8) 『義城金氏大同譜』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세기 인물 김병국은 권3의 “生父洪洛 字汝鈞 生壬寅 卒壬寅三月十六日”과 “生一九五五七月九日” 두 사람으로 확인되지만, 특정하지는 못했다. 제현들의 질정을 기다린다.
- 9) 서정문, 『운천집 해제』,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에서 인용.
- 10) 의성김씨 천상문화보존회(김시환 외 역), 『(국역)연방세고(金璉 外著)』 (서울: 청계선생탄생오백주년기념 국역연방세고간행위원회, 2001).

<표 1> 『유목』 1~2책의 구성과 서지사항

연번	구분	형식	크기(cm)	작성연도	발/수급자	내용	본문 대조	비고
1	1책	簡札	21.9×20.7	丙寅年(1614) 5.19	金涌/미상	생일 축하	×	훼손
			17.1×20.6	미상	金涌/미상	祭需品 보냄	×	훼손
2		分財記	28.1×41.7	萬曆4(1576) 5월	曾祖母/미상	재산 상속	×	훼손
3		疏	36.5×41.6	萬曆27(1599) 1월4일	金涌/국왕	督運御史 辭職	×	훼손
4		簡札	31.4×44.3	乙未年(1595) 2월26일	金涌/미상	五聖十哲 享祀	○	훼손
5		漢詩	31.7×42.9	丙申年(1596)	金涌/金澤龍	난의 평정을 희망	○	훼손
6		漢詩	31.0×23.1	丙申年(1596)	金涌/金澤龍	난의 평정을 희망	○	양호
			30.2×19.1	癸丑年(1613)	金涌/미상	아들의 登第		양호
7		簡札	17.9×18.1	未詳	미상/미상	고모님 訃音	×	훼손
			16.8×17.7	10월 21일	미상/미상	近思錄 등을 보냄	×	훼손
			13.9×15.7	未詳	미상/미상	병으로 부임 못함	×	훼손
			13.2×14.6	壬寅年 4월29일	미상/미상	婚禮 일자	×	훼손
			13.8×16.8	未詳	미상/미상	어머니 患候	×	훼손
8		祭文	36.7×47.5	戊戌年(1598) 2월21일	金涌/金是樾	아들 죽음 애도	○	훼손
9		漢詩	29.8×49.3	未詳	金涌/朴守謙	希夷堂 洛城	○	훼손
			36.7×52.3	未詳	金涌/朴守謙	安分自足	○	훼손
10		簡札	28.2×39.2	乙卯年 8월29일	미상/權佐郎	粉針 값	×	훼손
			27.8×17.1	未詳	미상	東萊 편지	×	훼손
11		祭文	38.7×54.4	未詳	金應祖/金然	哀悼	○	양호
12		挽詩	37.8×51.2	未詳	李元圭/미상	哀悼	×	양호
			37.2×23.4	未詳	李元圭/미상	哀悼	×	양호
13		遺墨	20.4×41.8	未詳	미상/미상	乃世軒	×	양호
14		挽詩	39.6×53.8	未詳	金柱宇/친구	哀悼	×	양호
15		挽詩	37.9×26.2	未詳	金柱宇/친구	哀悼	×	양호
16		祭文	41.6×43.2	未詳	雲山/김용	追慕	×	훼손
17	2책	漢詩	38.4×43.2	萬曆41(1613) 9월5일	車天輅/金涌	白雲亭八景	○	양호
			40.2×45.7	萬曆41(1613) 9월5일	車天輅/金涌	白雲亭八景	×	양호
			40.1×47.9	萬曆41(1613) 9월5일	車天輅/金涌	白雲亭八景	×	양호
			40.3×45.8	萬曆41(1613) 9월5일	車天輅/金涌	白雲亭十詠	×	양호
			40.2×45.8	萬曆41(1613) 9월5일	車天輅/金涌	白雲亭十詠	×	양호
			39.7×24.2	萬曆41(1613) 9월5일	車天輅/金涌	白雲亭十詠	×	양호

위의 <표 1>을 정리하면, 『유목』 2책은 총 간찰 9통, 분재기 1통, 疏 1통, 한시(만시 포함) 18수, 제문 3편, 편액 1편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의 연번은 각 권의 장차를 따랐으며, 여기에 수록된 자료 중 본문 대조 항에서 “○”로 표시된 것은 김용의 문집인 『운천집』이나 기타 자료를 통해 원문 대조가 가능함을 뜻한다. 이하 원문 대조가 가능한 자료를 제외하고, 주요 자료를 선별하여 수록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유목』 1책 표지, 권수면

『유목』 1책 첫째 장의 간찰 2통은 김용이 상대방의 생일을 맞아 하례물품을 보낸다는 내용과 상대방의 기일에 祭需品을 보낸다는 내용으로 문서의 후반부가 훼손되어 자세한 것은 파악하기 어렵다. 문서번호 2번 分財記는 1576년에 曾祖母 忠義衛 趙處 李아무개가 발급한 것으로, 노비를 分給하는 내용이다. 이하 해당 면의 원문을 탈초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면 간찰 2통

1) 丙寅年 5월 19일 簡札

戀極承書知好在喜[缺]/矣我則不恙在青[缺]/復明一之證亦何如以觀/推之則必是差復喜釀/度來矣初度未得的[缺]/送吾令城二度[缺]/謝狀否餘到官後/不具 丙寅五月十九

2) 발급연도 미상 簡札

矣酷舊疾何如[缺]/我則上下皆無[缺]/忌家中行祭[缺]義城備物送[缺]/昨夜雨纔一積/[缺][缺]
[缺]食[缺]月初十

□ 1면 分財記

萬曆四年<丙子>五月[缺]/義生處成文右成[缺]/事段余以孀老得[缺]/無愴感之情爲沙餘[缺]/汝矣初度觀 岐[缺]/
愛重爲平等乙用良婢[缺]/給爲去乎後所生并以[缺]/用爲乎矣後次別有[缺]/此文內以辨正印/筆執 祖生員/財主 曾祖母 忠義衛趙妻李[缺]/

자료번호 3번은 1599년 1월 4일에 김용이 平安道督運御史의 임무를 신병을 이유로 辭職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疏이다. 문서에 기재된 김용의 신분은 平安道督運御史 朝散大夫 宗廟署令이다. 『운천집』 해제 및 『年譜』를 통해 김용은 1598년에 평안도독운어사에 제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이 문서를 통해 김용은 평안도독운어사의 임무를 1년 만에 사양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김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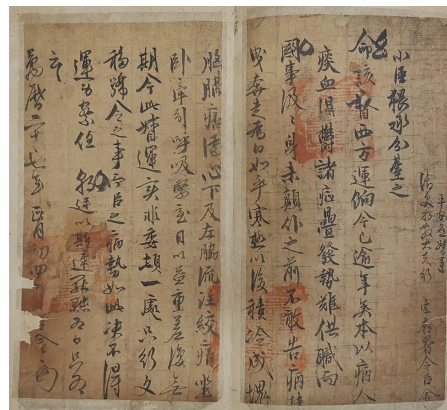
신병은 胸膈痞滿과 심장 아래 왼쪽 옆구리 통증이었다.

□ 2면 萬曆 27년(1599년) 疏

平安道督運御史 朝散大夫 行 宗廟署令 臣 金

小臣猥承分臺之命該督西方運餉今已逾年矣本以病人/【官印】痰血濕鬱諸症疊發勢難供職而 /國事汲汲身未顛仆之前不敢告病[缺]/曳奔走爲白如平寒極以後積冷成塊/胸膈痞滿心下及左脇流注絞痛坐/【官印】臥牽引呼吸緊至月以益重差復無/期今此督運實非委頓一處只行文/移號令之事而臣之病勢如此決不得/運身察任朝廷以斯速罷黜爲白只爲/云云/【官印】

萬曆二十七年正月初四日 臣金<手決>



<그림 2> 『유목』 1책 본문 2면, 平安道督運御史 辭職疏

자료번호 7번의 간찰 5통은 각각 가까운 친지나 벗에게 보내는 일상적인 안부와 『近思錄』 등의 서책을 보낸다는 내용으로, 후반부 및 본문 일부에 훼손이 있어 자세한 것은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세 번째 간찰의 경우, 본문에脇痛을 언급한 점으로 미루어, 앞에서 살핀 1599년 발급 관문과 관련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자료번호 10번 간찰 2통은 발급자와 수급자, 그리고 작성 연대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후반부 훼손이 심하다. 본문을 살펴보면, 첫 번째 간찰은 광해군이 奉慈殿에 나아가 친제를 행한 것에 관련된 내용으로,¹¹⁾ 친제 당일 발급자가 入城했으나 병이 너무 심해 그날 사은숙배하지 못하고 이틀 뒤인 28일에 했다는 내용이다. 둘째 편지는 高尚顔씨와 경상도관찰사가 체직되었다는 소식과 이 일로 최참판댁에 통지를 했다는 내용 등이다. 두 번째 편지에 등장하는 高尚顔이 『農家月令歌』를 저술한 인물과 동일인지의 여부를 보다 정밀한 검토를 요하며, 이 두 통의 간찰은 발급자가 김용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없다는 아쉬움을 지닌다.

11) 『광해군일기』 7년 8월 26일자 기사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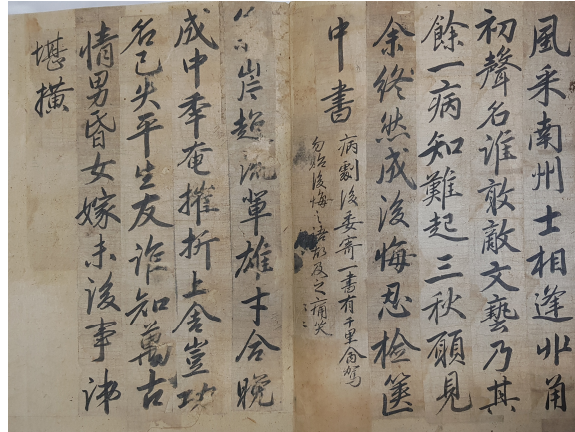


<그림 3> 발·수급자 미상 간찰 5통(6면, 좌), 발급자 미상 간찰 2통(10면, 우)

자료번호 14~15번은 金柱宇(1598-1644)가 벗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은 輓詩이다. 김주우는 본관 安東, 자 萬古, 호 易眠齋이며, 경북 봉화군에서 출생하였다. 그가 도산서원에서 강학할 때 溪巖 金垿는 후일 크게 될 인물로 칭송하였다. 1624년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성균관전적을 시작으로 말년에는 충청도도사와 울진현령 등을 지냈다. 어릴적부터 글씨로 명성을 얻어 열세 살에 진주 촉석루의 편액을 썼다는 이야기도 있다.

김주우와 김용은 임진왜란 당시 안동지역의 의병장과 참모의 관계로 만났던 것으로 추정된다. 1592년 4월 柳宗介를 의병장으로 하는 安東 義陣은 유종개가 사망한 뒤 任屹이 의병대장, 김용이 의병부장, 金中淸(1567-1629)이 참모와 서기를 담당하였다. 김중청은 김주우의 부친이다. 또 김중청이 월천 조목의 문인이며, 김주우의 6대조 寶白堂 金係行이 현재 김용이 제향된 목계서원에 함께 향사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김용과 김주우의 남다른 교유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¹²⁾

12)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는 『赴京別章』에 김용이 김중청에게 보낸 시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 시는 『운천집』 권1에 <送金而和中淸以千秋兼謝恩使書狀赴燕京 二首>로 남아 있다. 『부경별장』은 김중청이 1614년 千秋使兼謝恩使書狀官이 되어 北京에 가게 되었을 때, 조정 및 향촌의 체현들 70여인이 써 준 전별시를 모은 책이다. 김중청과 김용의 관계는 박인호(2007), “17세기 초 퇴계학파의 동향과 구전 김중청의 활동,” 정현공보백당서세 500주년학술대회발표요지집, 한국국학진흥원 참고.



<그림 4> 金柱宇의 輓詩(부분, 본문 15면)

지금까지 『유목』 1책에 수록된 것 중 원문 대조가 불가능하면서도 김용과 관련된 핵심 자료를 중심으로 내용을 간략하게 분석해 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원문 대조가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원문 서지학의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기로 한다.

3. 『유목』의 원문 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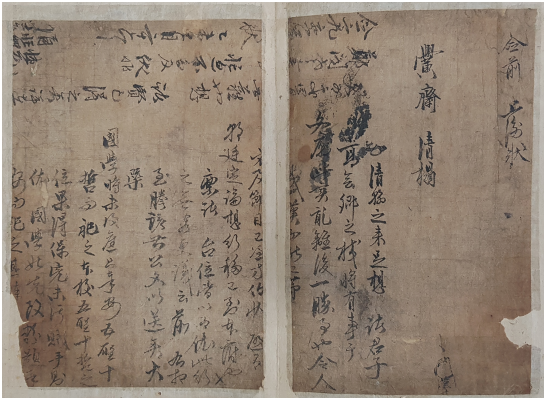
『유목』 1책에 수록된 16종의 자료 중 아래의 6종은 『운천집』을 비롯한 개인의 문집에 대조가 가능한 원문이 남아 있으며, 그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유목』의 원문 대조

연번	형식	유목	대조자료
1	簡札	乙未年(1595) 金涌 簡札	『운천집』 권3 〈答巽齋諸人〉
2	漢詩	金澤龍에게 줌	『운천집』 권1 〈寄元戎幕僚金施普澤龍〉
3	漢詩	金是柱에게 줌	『운천집』 권1 〈兒子是柱登第唱榜日有感吟呈座上〉
4	祭文	金是樾의 죽음을 애도	『운천집』 권4 〈祭亡子是樾大祥文〉
5	漢詩	希夷堂先占四韻一律...	『운천집』 권1 〈題朴伯益希夷堂〉, 〈希夷堂八景〉
6	挽詩	金然의 죽음을 애도	『敬窩集』 권8 〈輓詞〉
7	漢詩	白雲亭八景十二詠爲金太常卿僚長拜奉	『五山集 續集』 권1 酬金正甫所求詩 四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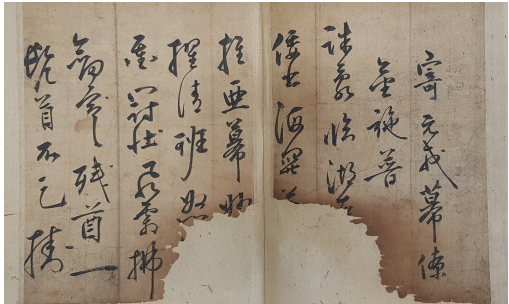
위의 <표 2>의 자료번호 1은 1595년에 김용이 같이 공부하던 書堂의 벗들에게 보낸 편지로,

후반부에 발급날짜와 발급자가 명기되어 있다. 또한 우측에는 “兪前 上候狀”이 적힌 피봉이 함께 배접되어 있다. 본문은 임진왜란으로 불탄 성균관과 향교에 다시 五聖十哲의 위패를 모시자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오성은 孔子·顔子·曾子·子思·孟子이고, 십철은 子張·閔子騫·冉伯牛·仲弓·宰我·子貢·冉有·子路·子游·子夏이다. 이들에 대한 위패를 복설하자는 건의는 『宣祖實錄』 26년 기사(1593) 12월 13일(임술)조에 보인다. 『유목』과 『운천집』의 해당 자료 원문은 아래와 같다.

	유목	운천집 권3 答巽齋諸人
본문	巽齋清榻 清翰之來足想諸君子/高會鄉之機將有事于/文廟此實亂離後一勝事也令人感歎不能已第/示及節目已憑方伯狀啓有/朝廷定論想行移已到本府也稟諸台位皆以爲依此行/之無□更議云前右相/至謚該曹公文以送矣大/槩/國學時未復舊奉安五聖十/哲而祀之本校五聖十哲之/位果得保完未汚賊手則依國學改粉題奉安而祀之其餘待/朝廷處置無難也 想諸賢已得之矣 詳在/鄭閣老書中忙迫不多及伏惟/ 念二十九□□乙未二月二十六日 涌□□□□□	清翰之來 足想諸君子 高會鄉之校 將有事于 文廟 此實亂離後一勝事也 令人感歎不能已 第示及節目 已憑方伯狀啓 有朝廷定論 想行移已到本府也 稟諸台位 皆以爲依此行 之 無容更議云 前右相 至謚該曹公文以送矣 大概 國學 時未復舊 只奉安五聖十 哲而祀之 本校五聖十哲之 位 果得保完 未汚賊手 則依國學改粉題 奉安而祀之 其餘待朝廷處置無難也 想諸賢已得之矣 詳在鄭閣老書中 忙迫不多及 謹狀
이미지		

인용문을 보면, 두 자료는 본문의 3글자 및 후반부를 제외하면 동일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반부가 간찰의 투식적 성격을 지니므로 문집에 수록될 때 대부분 축약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운천집』에 수록된 간찰은 김용이 보낸 내용을 비교적 가감없이 온전하게 수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목』 후반부에 기록된 을미년은 1595년으로, 이 때는 임란이 발발하여 선조가 의주로 피난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온 이듬해이다. 현전하는 『운천집』에 수록된 간찰이 <上宣惠廳堂上書>, < 答裴明瑞> 2통, <答黃混元> 등 5통에 불과하므로, 『유목』에 실린 간찰 11통은 김용의 書簡文을 파악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로 판단된다.

자료 번호 2번은 金澤龍(1547-1627)에게 보낸 한시는 본문에 결락이 있으나, 『운천집』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을 파악할 수 있다. 이 한시는 각각 1596년과 1613년에 작성한 것으로, 첫째 수는 이원익의 종사관 신분인 金澤龍의 奮戰을 바라는 내용이다. 둘째 수는 김용의 첫째 아들 是柱가 과거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는 내용이다. 이 중 첫째 시를 대상으로 『유묵』과 『운천집』의 본문을 대조해보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묵	운천집 권1 寄元戎幕僚金施普澤龍
본문	寄元戎幕僚/金施普/誅亂臨湖右□/倭出海關□□ /推亞幕妙□□/濯清班怒□/衝冠壯飛霜拂/劍寒殘 酋一/髡首不足掛/旗以竿 丙申冬 過客/過客/體察從 事 金涌/道源<手決>	寄元戎幕僚金施普<澤龍> 誅亂臨湖右 征倭出海關 英謀推亞幕 妙譽濯清班 怒髮衝冠壯 飛霜拂劍寒 殘酋一髡首 不足掛旗竿
이미지		

위 두 자료의 대조를 통해, 『유묵』에서 결락된 6자가 “征”, “英謨”, “譽濯” “髮”임을 알 수 있다. 『유묵』의 후반부 3줄 “過客/體察從事 金涌/道源<手決>”은 皮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묵』에서는 이 시를 지은 연도를 병신년(1596)으로, 당시 김용은 자신의 신분을 체찰사 종사관으로 표기하였다. 『운천집』에 수록된 동일한 내용의 시에는 김택룡을 체찰사의 막료로 표기하여, 김용과 김택룡이 이원익의 종사관으로 활약할 당시에 만났음을 짐작케 한다.¹³⁾

이 자료의 주인공 김택룡은 본관이 예안이며,¹⁴⁾ 月川 趙穆(1524-1606)의 문인이다. 그는 1576년에 司馬試에 합격한 뒤 虎賁衛副司猛・行龍驤衛司猛・行承文院博士・奉常寺直長・戶曹佐郎・兵曹佐郎・司憲府持平 등을 역임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왕을 의주까지 호종하였으며, 1600년 봄에 晉州提督官에 선발되었다. 1606년에는 宣武 2등 공신 靖難 1등 공신에 책록되었다.¹⁵⁾ 김택룡의 문집인 『操省堂集』에는 두 사람의 교유 관계를 알 만한 자료가 없다. 다만 김택룡이 선조를 의주까지

13) 『운천집』 「年譜」에 “二十五年丁酉 先生四十一歲 (중략) 李相國元翼爲諸道體察使 南下視師 辟先生爲從事官 人間幕僚之賢者”라 하여 김용의 나이 41세 되던 해(1596)에 이원익의 종사관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4) 김택룡의 선대는 의성김씨였으며, 김준 대에 예안으로 이거하여 본관으로 삼았다. 『조성당집』 권4, <遺事>, “先生諱澤龍 字施普 號操省堂 金氏系出義城 至高麗同正諱椿移居禮安 因以爲貫” 참고.

15)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문집해제』 「조성당집」 (경산: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800-801.

호종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란 발발 이후 의주 행차까지 김용과 김택룡의 동선이 겹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김택룡이 이호민에게 보낸 시 <楓嶽長安寺次呈李五峯[好閔]>(『조성당집』 권1)로 미루어, 김용, 이호민, 김택룡은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료번호 3번과 자료 번호 4번은 검토할 대목이 다소 유사하다. 먼저 자료번호 3은 김용의 맏아들 金是樾(1575-1596)의 대과 합격을 축하하는 내용으로, 『유묵』과 『운천집』 권1 <兒子是柱登第唱榜日有感吟呈座上>의 본문 “追憶庚寅榜 簪花四十人 那知今日唱 宛似昔年新 聖制勳華一 恩光父子均 嗟吾已衰朽 報國在誰身”이 동일하다. 다만 유묵은 본문 하단에 작성자를 “雲川老人”으로 표기하고, 그 아래에 “題癸丑榜目”라는 주석이 있다. 이 시의 본문에서 말하는 庚寅年은 1590년으로, 김시주의 나이 16세가 되던 해이다. 이를 통해서 김시주는 16세에 소과에 입격하였으며, 이후 6년 뒤에 대과에 합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료번호 4는 김용의 둘째 아들 金是樾(1576-1596)의 大祥日에 지은 제문으로, 『운천집』 권4에 <祭亡子是樾大祥文>라는 제목으로 동일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유묵』에는 본문의 첫머리에 “維戊戌之歲二月二十一日 □□遣子是□等 祭告于亡子是樾之靈曰”라는 내용이 있으나, 『운천집』에는 이런 문구가 없다. 또 『운천집』에는 김시건의 소상일에 지은 <祭亡子是樾小祥文>도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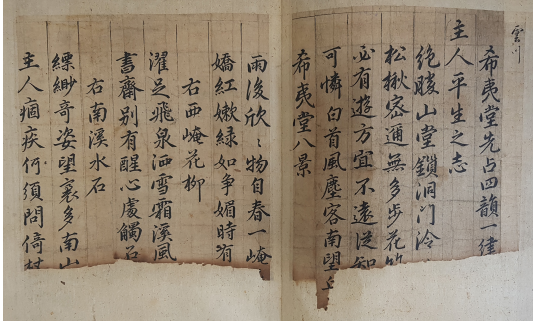
자료번호 3과 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김용은 임진왜란을 즈음하여 숙부 김성일과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차례로 잃는 슬픔을 겪었다. 『연보』를 보면, 김용은 이후에도 남은 두 아들마저 자신보다 먼저 잃는 아픔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자료번호 3과 4와 같은 유형의 자료는 『유묵』에 수록된 내용의 신빙을 담보함은 물론, 김용의 일상사와 관련된 연구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자료번호 5번은 김용의 벗 朴守謙(1576-1622)이 건립한 希夷堂의 절경을 노래한 七言律詩 1수와 希夷堂八景을 노래한 七言絶句 8수이다. 希夷堂은 박수겸이 宋代의 학자 陳希夷(陳搏)를 사모하여 예천 북쪽의 이름난 사찰 龍門寺 근처에 세운 정자이다.¹⁶⁾ 김용이 노래한 희이당 팔경은 각각 <西崦花柳>, <南溪水石>, <柏巖煙霞>, <璃洞雪月>, <梅窓早信>, <菊塢晚香>, <松逕清陰>, <蓮塘疏雨>이다. 김용은 희이당팔경시 외에도 希夷山, 梅花洞, 存誠齋, 果育門, 風詠壇, 洗心臺, 滌煩臺, 澄心臺, 悟昨橋, 永夕巖 등의 十景詩(五言絶句)를 남기기도 했다.¹⁷⁾ 이 자료의 『유묵』과 『운천집』 원문 대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6) 鄭允穆, 『清風子集』 권4, <希夷精舍記>.

“洞何在 在嶺之南 小白之東 酒泉郡北 龍門寺左 號曰希夷 我老友朴公伯益 創精舍于此 因洞號以號焉 小軒號曰伴睡 蓋慕古陳希夷先生而名之者也.”

17) 金涌, 『雲川集』 권1, <希夷堂十詠>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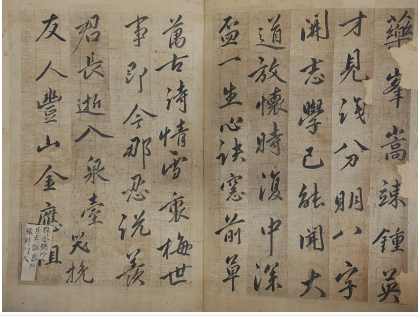
	유목	운천집 권1
본문	希夷堂先占四韻一律□□□□□□ 主人平生之志 絕勝山堂鎖洞門/冷□□□□□□/松楸密邇無 多步/花竹□□□□□/必有遊方宜不遠/從知□□□ □□/可憐白首風塵客/南望丘原只斷魂	題朴伯益希夷堂<朴君於希夷山洞 作一堂而藏修之 乃其先壘之下也 八景十詠 皆此堂之所取而有者> 絕勝山堂鎖洞門 冷泠幽澗靜中喧 松楸密邇無多步 花竹傍栽幾百根 必有遊方宜不遠 從知事沒一如存 可憐白首風塵客 南望丘原只斷魂
이미지		

위의 대조표를 보면, 『유목』과 『운천집』에 수록된 希夷堂 한시는 원문에 차이가 전혀 없으며, 『유목』에 결락된 내용을 『운천집』을 통해 보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목』에는 제목의 5-6 글자가 결락되어 자세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운천집』에 수록된 내용으로 미루어 결락된 부분을 유추할 수 있다. 『운천집』에는 <西崦花柳>, <南溪水石>, <柏巖煙霞>, <璃洞雪月>, <梅窓早信>, <菊塢晚香>, <松逕清陰>, <蓮塘疏雨> 등 8개의 승경을 소재로 하는 <希夷堂八景> (『운천집』 권1)과 <希夷山>, <梅花洞>, <存誠齋>, <果育門>, <風詠壇>, <洗心臺>, <滌煩臺>, <澄心臺>, <悟昨橋>, <永夕巖> 등 10개의 승경을 소재로 하는 <希夷堂十詠> (『운천집』 권1)이 있다. 이런 몇 가지 사실로 미루어볼 때, 『유목』의 회이당시는 박수겸이 회이당에 대한 시를 선창하고 김응에게 화답을 요구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자료번호 6번은 金應祖(1587-1667)가 金傑(1597-1638)를 애도하며 지은 만시이다. 김응조는 柳成龍과 張顯光 문인으로 旅門十賢으로 일컬어지던 인물이다. 김휴는 『해동문헌총록』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김응의 셋째 아들인 김시정의 아들이므로 김응에게는 손자가 된다. 두 사람의 관계는 혼인으로 맺어져 있는데, 김응조는 김성일의 아들 金宏의 사위이다. 그러므로 김응과 김응조는 사돈 지간이다. 金聖鐸(1684-1747)이 의성김씨 내약의 학문이 김진-김응-김휴에게 전수되었다고 평가한¹⁸⁾ 점으로 미루어, 김휴가 의성김씨가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유목에 실린 이 자료는 『경와집』을 통해 원문의 대조가 가능하다.

18) 金聖鐸, 『霽山集』 권16, <敬窩金公行狀>.

“蓋靑溪公所授於雲川公 而雲川公又傳之敬齋 以至公者也 至今以爲傳家舊物云 公方疾病 有留寄草堂梅詩曰 寄語溪堂一樹梅 好藏清艷待春回 開時且莫悲無主 定有吟魂月下來 鶴沙金公應祖聞而歎曰 此友精神 盡在此詩 及葬輓之曰 藥峯崇嶺鍾英才 見識分明八字開 若鶴老 可謂知公之深者矣.”

	유목	경와집 권8 輓詞
본문	藥峯崇鍾英/才見識分明八字/開志學已能聞大/道放懷時復中深/盃一生心訣窓前草/萬古詩情雪裏梅/世/事即今那忍說/羨君長逝入泉臺/友人豐山金應祖哭挽	藥峯崇鍾英才 見識分明八字開 志學已能聞大道 放懷時復中深杯 一生心訣窓前草 萬古詩情雪裏梅 世 事即今那忍說 羨君長逝入泉臺
이미지		

인용문에서 보듯, 두 자료에 수록된 본문은 “盃”와 “杯”를 제외하면, 내용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해당 두 글자는 通用字로, 바꾸어 써도 내용에는 차이가 전혀 없다.

자료번호 7번 백운정팔경시 및 십이경시는 앞의 자료들과 구성이 다소 상이하다. 먼저 서두에 “백운정 팔경시와 십이영을 지어 김태상경 요장에게 올림[白雲亭八景十二詠爲金太常卿僚長拜奉]”라는 제목이 있으며, 그 아래에 白雲亭八景(칠언절구) 8수와 十二詠(오언율시) 12수 등 총 20수가 들어 있다. 문서의 후반부에는 “만력 41년 계축년(1613) 가을 9월 5일에 예조 연안후인 오산 차천로가 술에 취해 휘갈기다[萬曆四十一年癸丑秋九月初五日 詣朝廷安後人五山車天輅 乘醉一揮]”는 주석이 있다. 또 본문의 좌우 협주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부기되어 있다.

이것은 백운정 팔경과 십이영이다. 모두 11편이다. <편말에 선생이 “만력 41년 계축년 가을 9월 초5일에 예조 연안 후인 오산 차천로가 술 취해 휘갈기다.”라고 기록하였다.>

오산선생의 친필. 성 차씨. 휘 천로. 자 복원. 호 오산. 관직 봉검. 문헌록의 명필편에 있고, 또 문장편에도 있음. 이조 명종 때 인물.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단군기원 4290년(1957) 정유년 5월 7일 운천 선생 11대손 의성 김병국은 삼가 기록한다.<대대로 전할 보물임>[此白雲亭八景十二詠 凡十一篇 篇末先生記之 以萬曆四十一年癸丑秋九月初五日 詣朝廷安後人五山車天輅 乘醉一揮云爾 五山先生生筆 姓車氏 諱天輅 字復元 號五山 官奉僉 有文獻錄名筆篇 又有文章篇 李朝明宗時人 至今約四百年餘 檀君紀元四千二百九十年丁酉五月七日 雲川先生十一代孫 義城金秉國敬識 世傳之寶]

인용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이 첩은 車天輅(1556-1615)가 노래한 백운정의 팔경과 십이영을 김용의 후손 김병국이 1957년에 수습해 정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차천로가 이 시를 지은 1613년은 그가 임종하기 2년 전이다. 『五山集』에 수록된 李冕宙(1827-1910) 撰 차천로행장을 보면, 차천로는 1609년 迎詔使 金尙憲(1570-1652)과 柳根(1549-1627)의 제술관이 되어 중국 사신과 시를 수창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차천로가 백운정팔경과 십이영을 창작하게 된 배경은 자세하게 파악할 수 없다. 다만, 김용과 차천로의 생몰연도가 비슷하고, 차천로가 1590년에 김성일과 함께 일본통신사를 다녀온 사실¹⁹⁾ 등으로 유추해 보면, 김용과 차천로는 1590년대부터 교유관계가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차천로가 이 시를 짓게 된 배경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차천로의 문집에 <酬金正甫所求詩> 4수²⁰⁾가 실려 있고, 각각의 내용이 長林細雨, 平江霽月, 北遷行旅, 東郊稼穡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유묵』에 실린 20편의 시는 모두 차천로의 작품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오산집』에는 이 시의 제목을 ‘김정부가 요구해서 답한 시’라고 하여, 상대방의 요청으로 지은 것임을 밝혔다. 李好閔(1553-1634)의 『오봉집』에 수록된 <白雲亭八景>²¹⁾ 및 『雲川集』의 <白雲亭八景>²²⁾ 등의 작품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백운정은 김용의 생존 당시에 시인묵객들이 머무르며 시작 활동을 한 공간임을 알 수 있다.²³⁾

이 시의 배경이 되는 백운정은 내앞에 있는 정자로, 金璣이 傳巖 남쪽에 부암서당을 마련하여 마을의 자제들을 가르친 이후 그 자리에서 약간 북쪽에 김용의 부친 金守一이 설립하였다.²⁴⁾ 그로부터 백운정은 의성김씨 내앞 마을의 상징물이 되었다. 『유묵』에 수록된 팔경은 각각 <長林細雨>, <平江霽月>, <東郊稼穡>, <北遷行旅>, <藥山夕烽>, <岐峯曉日>, <遙峯返照>, <平江霽月>, <東郊稼穡>, <北遷行旅>, <藥山夕烽>, <岐峯曉日>, <遙峯返照>, <別浦游魚>의 순이며, 십이영은 <秋月>, <春花>, <湮江>, <雪山>, <茂林>, <平沙>, <眠鷗>, <牧牛>, <雁陣>, <魚隊>, <牧笛>, <漁火>의 순이다. 차천로가 지은 백운정팔경은 『유묵』과 『오산집』에 다음과 같이 남아 있다.

19) 車天輅, 『五山集 續集』 권4, 『行狀[李冕宙]』.

“庚寅以製述官從鶴峯金先生誠一 同使日本而有聯句三篇 膾炙於世 南壺谷詩話曰 公使日本 日人設白紋障蚊之帳 廣數間 一宿之傾 製各體揮灑遍帳.”

20) 車天輅, 『五山集 續集』 권1, <酬金正甫所求詩 四首>.

21) 李好敏, 『五峯集』 권1, <白雲亭八景爲金體泉誦賦之>.

22) 金涌, 『雲川集』 권1, <白雲亭八景>.

23) 이 밖에도 白雲亭의 勝景을 노래한 한시는 趙靖(1555-1636)의 <白雲亭次鶴峯先生韻>(『黔澗集』 권1), 李安訥(1571-1637)의 <寄題白雲亭爲雲川金參議涌作用諸公韻>(『東岳集』 권23), 鄭允穆(1571-1629)의 <次臨河白雲亭韻>(『清風子集』 권1), 南夢賁(1620-1681)의 <白雲亭醉呈同遊諸君> 및 <次白雲亭韻寄金安安>(『伊溪集』 권2), 金佺의 <敬次白雲亭十二景韻>(『敬窩集』 권3), 李頤淳(1754-1832)의 <白雲亭次板上韻>(『後溪集』 권2), 金命錫(1675-1762)의 <伏次雲川先祖白雲亭八景韻> 및 <伏次鶴峯先生白雲亭十二詠>(『雨溪集』 권1), 柳健休(1768-1834)의 <次白雲亭韻>(『大槓集』 권1) 등이 있다.

24) 金誠一, 『鶴峯集』 附錄, 권1, <年譜>, “亭在川前南傳巖上 判書公所卜而龜峯公所構也 北對家廟 南望松楸 喪畢 猶未歸家 蓋以餘哀未盡 而寓其追慕之誠也” 및 金聖鐸, 『霽山集』 권13, <白雲亭重修記>, “又曰 令弟開亭控上流 基因舊卜謝新謀 則亭蓋青溪公所肇基 而仲子龜峯公之所作也 其名之以白雲也” 참고.

	유목	五山集 續集 권1
	白雲亭八景十二詠爲金太常卿僚長拜奉 平林漠漠欲生煙 晚雨廉纖低遠天 若就眼前來貌得 請君須喚老龍眠 右長林微雨 澄江如練浸晴沙 更着金波淨色加 祇恐魚龍難作夜 莫教秋氣捲餘霞 右平江霽月 鐵壁巉巖玉流 侵雲錦路繞山周 不知塵土緣何事 物役東西抵死休 右北遷行旅	酬金〈正甫〉所求詩 四首 平林漠漠欲生煙 晚雨廉纖低遠天 若就眼中來貌得 請君須喚老龍眠 右長林細雨 澄江如練浸晴沙 更着金波淨色加 祇恐魚龍難作夜 莫教秋氣捲餘霞 右平江霽月 鐵壁巉巖玉流 侵雲線路繞山周 不知塵土緣何事 物役東西抵死休 右北遷行旅

* 『유목』과 『오산집』에는 각각 〈右東郊稼穡〉 한 수가 더 있으나, 원문이 동일하므로 생략함

인용한 『五山集』에서 말한 金正甫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유목』과 『오산집』의 내용이 6글자를 제외하고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오산집』에서 말하는 김정보는 『유목』의 太常卿金僚長과 동일인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태상경은 고려시대까지 종묘의 제례나 연회 등에서 음악을 관장하던 관직으로 조선시대의 禮曹判書와 유사하다. 僚長은 幕僚長의 줄임말로, 오늘날의 副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유목』에서 말하는 金太常卿僚長은 예조판서의 부관, 즉 임진왜란 직전 일본에 통신사로 파견된 金誠一 혹은 그의 조카 金涌을 가리키는 말임을 유추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유목』 1~2책에 수록된 자료 중 간찰 8통, 관문 1편, 한시 5수, 제문 1편 등 총 18건의 문서는 金涌이 직접 작성하였거나, 金涌과 관련된 인물이 작성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현전하는 『운천집』의 부록에 수록된 金涌의 친필을 『유목』과 대조하면, 『유목』은 金涌의 친필과 유사성이 많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목』은 金涌의 11대손 金병국이 1950년 이전부터 金涌의 필적 및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한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된다.

4. 『유목』의 가치와 활용

『유목』은 의성김씨 귀봉과 김병국이 11대 선조 김용의 친필과 김응조, 이원규, 김주우 등 후인들의 필적을 모았다는 점에서 첫 번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김용은 임란이 발발한 뒤 督運御史, 體察使 從事官 등의 직무를 수행했고, 宣祖를 호종하는 과정과 피난지에서의 생활을 『호종일기』로 남기기도 했다. 이 일기는 자료적 가치를 인정받아 1960년대에 보물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호종일기』를 비롯하여 『운천집』 등 김용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에 접어들지도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유목』은 김용의 문학, 교유관계 등 그의 학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김병국은 『유목』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의성김씨 내앞 문중의 先祖들 중 白雲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들의 자료를 적극 수집하였던 점이다. 이는 『유목』 1책 말미에서 김병국은 김용의 11대손 金秉韶가 지은 5대조 金相說 제문을 수록한 점을 통해서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해당 부분의 협주에 “5대조 운산선생의 친필이다. 운산선생의 휘는 상열, 자는 몽필, 호는 운산이다. 영조 때 인물로, 당대의 명필이다. 5대손 병소 올면서 기록하다.[五代祖考雲山先生手筆 諱相說 字夢弼 號雲山 英宗時人 當世名筆 五代孫秉韶泣識]”라는 내용이 있다. 김상열은 청계 김진의 靑孫으로, 1743년 김용의 5대손 金振河, 金白河, 金受河 등과 더불어 백운정을 중수하고 대대로 관리토록 하였다. 현재 백운정에 게관되어 있는 眉叟 許穆가 독특한 서체로 쓴 <백운정> 편액도 이때에 제작된 것이다.

김용의 詩文이 『유목』에서 절반의 양을 차지하는 것 또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앞장에서도 살폈듯이, 백운정은 김용이 부친이 처음 건립한 이래 1616년 이후 김용이 만년의 거처로 삼았다. 김용의 사후 후손들은 백운정을 운천선조의 유족지로 인식하였다. 또 『유목』에는 수록되지 않았지만, 김용 자신이 백운정을 각별히 아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유목』의 숨은 편찬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둘째, 김용이 평소에 창작한 한시 중에는 백운정과 관련된 것이 다수 있으며, 이는 가문 의식의 발로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이 된다. 백운정은 청계 김진이 부친의 삼년상을 치르면서 傅巖 근처에 세운 정자이다. 정자의 이름을 ‘백운’으로 명명한 까닭은 唐代의 재상 狄仁傑이 河陽에 아버지를 남겨 두고 并州로 벼슬살이를 나가다 太行山에 올라 흰 구름을 바라보고 고향에 계신 부모를 그리워한 고사를 차용한 것이다. 이후 백운정은 김용의 후손이 대대로 관리하면서 조상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계승되었다.²⁵⁾

25) 김성탁, 『霽山集』 권13, 『白雲亭重修記』.

“其名之以白雲也 靑溪公居承旨公憂 既三年復寢 來棲于傅巖 而承旨公衣冠之藏 近在瞻望之地 乃有感於狄梁公望白雲故事 而取以扁之 以寓其孝思 (中略) 萬曆壬午 靑溪公喪畢 龜峯公與鶴峯公 屏居于此 朝夕對家廟 望松楸 以托慕而展哀 如靑溪公遺則 至雲川公 當昏朝政亂 潔身閒居 盖未嘗不在其中 仍以考終于此 則我先故遺躅 所留於九曲 亦斯亭與仙亭爲最焉 自是爲先祖後人者 或藏修遊息於斯 或招邀燕樂於斯 而世主之者 雲川公子孫也.”

백운정을 배경으로 하여 한시를 남긴 이들은 비단 의성김씨와 인근 고을 인사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호민은 백운정팔경시에서 ‘長林微雨’를 “白雲亭裏思親夢 半夜騷騷有物搖 知是長林一雲雨 却和親淚送蕭蕭”라고 하였고, 이어 平江霽月, 東郊稼穡, 北遷行旅, 藥山夕烽, 岐峯曉日, 遙峯返照, 別浦游魚를 각각 ‘團’, ‘絲’, ‘哀’, ‘登’, ‘迢’, ‘阿’, ‘居’ 자를 운자로 하는 七言絶句를 남겼다. 이호민의 처삼촌이 김성일이므로, 그가 백운정을 직접 방문하였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백운정과 직간접적인 인연을 갖고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백운정은 의성김씨들을 중심으로 한 조선 후기 문학 창작의 한 공간이라는 점 외에도, 차천로가 연작시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문학사에서는 조선 선조-광해군 연간을 ‘穆陵盛世’라 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성취를 이룬 시기로 평가한다. 차천로는 비록 불우한 시절을 보냈으나 그의 시는 穆陵盛世의 문단에서 선배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특히 그의 連作詩는 당대에 이미 정평이 났는데, 명의 장수 이어송이 돌아갈 때 七言律詩 1백首와 七言排律 1백韻을 지은 것은 후대에 회자되었다.²⁶⁾

차천로와 백운정의 인연은 1590년 그가 黃允吉·金誠一이 일본통신사로 파견될 때 書狀官의 임무를 띠면서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김시박의 <백운정보수기>에서는 백운정의 창건을 1580년 이전으로 말하고 있으므로,²⁷⁾ 1590년 통신사 행차 이전에 이미 백운정은 건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유목』에 수록된 차천로의 백운정시 후반부에 “술에 취해서 지었다.(萬曆四十一年癸丑秋九月初五日 詣朝廷安後人五山車天輅 乘醉一揮)”라고 고백한 사실로 미루어, 이 시는 임란이 끝난 뒤 김용이 차천로를 백운정에 초대해 지은 것으로 짐작된다. 後識에서 차천로가 “술에 취해서 짓다.”고 한 것은 김진의 원운에서 성대한 축하연을 언급했기 때문이다.²⁸⁾

5. 결 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의성김씨 귀봉과 김병국이 편찬한 『유목』의 구성과 체제, 수록 내용의 서지적 분석, 수록 자료의 가치와 활용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고는 『유목』의 소개와 수록 자료의 개략적 분석에 중점을 두었으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유목』에 수록된 자료는 크게 16건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김용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26) 沈守慶, 『遺閑雜錄』.

“文士車天輅以能文名於世而最長者詩與四六也(中略) 癸巳春都督大破倭寇于平壤 夏倭寇退屯于東萊釜山等處 秋都督還朝 臨別求別詩於諸文士 天輅作詩及七言律詩一百首七言排律一百韻 律詩則上下平聲各韻盡押而二日作之 排律則押陽字韻 而平日作之富瞻敏捷 當代無雙真天才也 其詩世方傳播焉.”

27) 백운정에 개관된 金時璞의 <白雲亭補修記>에는 “靑溪先祖께서 터를 잡아 주었고 둘째 아드님 龜峯府君께서創建하였다. 그 時期는 朝鮮 宣祖13년 西紀 1580년 以前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28) 본고에서는 김용과 차천로의 백운정시에 대한 향후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을 따름이며, 『유목』에 수록된 차천로의 白雲亭八景과 十二詠에 대한 분석은 후일 지면을 달리하여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추정되는 것은 간찰 10통, 分財記 1편, 關文 1편, 漢詩 4수 등 총 15건이다. 이 가운데 蠶齋의 제인들에게 보낸 간찰, 김택룡에게 보낸 한시, 아들 김시주에게 보낸 한시, 박수겸에게 답한 한시 8수 등은 모두 『운천집』에 수록되어 있어, 원문 대조가 가능하다. 또 차천로가 지은 白雲亭八景 8수 또한 그의 문집 『오산집』에 4수가 남아 있어, 이 역시 원문 대조가 가능하다. 『유묵』에 수록된 상기의 몇 가지 자료의 원문 대조를 통해 『유묵』의 신뢰성 및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유묵』에 수록된 차천로의 白雲亭八景 및 十二詠을 통해 조선 후기 팔경시의 창작 공간과 특정 가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팔경시 전개 양상 등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 후기에 작성된 詩話集이나 『선조실록』 등을 검토하면, 차천로의 詩才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차천로가 使臣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지은 連作詩는 당시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후대의 시인들에게 자주 膾炙되곤 했는데, 백운정팔경 및 십이영 또한 그의 連作詩 창작 경향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본고는 『유묵』을 소개하는데 논의의 초점을 모았기에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유묵』에 수록된 각각의 자료(간찰, 疏, 祭文, 漢詩 등)에 대한 고문서적 접근이 다소 부족했다는 점이다. 둘째, 『유묵』에 수록된 자료 중 김용의 친필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현전하는 자료 중 김용의 친필은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된 자료 ‘의성김씨내앞귀봉과유물’을 통해 그 대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운천집』 부록에도 일부 산견된다. 그러므로 상기 자료와 『유묵』의 글자를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 또한 필수불가결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고는 지면의 제약으로 이를 충실히 다루지 못하였으며, 향후 지면을 달리하여 자세한 분석을 기약한다.

<참고문헌>

- 金誠一. 『鶴峯集』, 한국문집총간 48. 한국고전번역원 영인본. 1989.
金聖鐸. 『霽山集』, 한국문집총간 206. 한국고전번역원 영인본. 1998.
金涌. 『雲川集』, 한국문집총간 63. 한국고전번역원 영인본. 1991.
金澤龍. 『操省堂集』. 경북대학교 소장본.
李好敏. 『五峯集』, 한국문집총간 56. 한국고전번역원 영인본. 1990.
鄭允穆. 『淸風子集』, 한국문집총간 속집 26. 한국고전번역원 영인본. 2006.
車天輅. 『五山集』, 한국문집총간 61. 한국고전번역원 영인본. 1991.
沈守慶. 『遣閑雜錄』. 백야문화사 영인본, 1980.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문집해제』. 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1988.

의성김씨대동보간행위원회. 『義城金氏大同譜』. 서울: 의성김씨대동보간행위원회, 1992.

- 의성김씨 천상문화보존회(김시황 외 역). 『(국역)연방세고[金璣 外著]』. 서울: 청계선생탄생오백주년기념국역연방세고간행위원회, 2001.
- 구본현. “차천로의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8집(한국한시학회, 2003). 31-58.
- 김영시. “남악(南嶽) 김복일선생(金復一先生)의 생애(生涯)와 선비정신.” 『東洋禮學』 22(2009). 151-188.
- 김준동. “醴泉 義城金氏 南嶽宗宅 소장 古文獻의 서지적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8.
- 박인호. “17세기 초 퇴계학과 동향과 구전 김중청의 활동.” 『정헌공보백당서세500주년학술대회발표요지집』. 한국국학진흥원(2007). 43-84.
- 신두환. “약봉(藥峯) 김극일(金克一)의 『임하이십육영(臨河二十六詠)』 연구(研究).” 『한국한문학연구』 54(2014). 5-44.
- 심경호. “학봉 김성일과 일본 유학 -학봉의 군자유(君子儒) 풍모가 후지와라 세이카에게 끼쳤을 영향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67집(2019). 137-177.
- 오용원. “약봉(藥峯) 김극일(金克一)의 문예의식(文藝意識)과 시세계(詩世界).” 『퇴계학과 유교문화』 29(2001). 213-230.
- 임준철. “車天輅 詩에서의 李白 詩 ‘麓’ 意象의 受容과 變奏 - 中國 古典詩歌 意象의 韓國的 受容에 관한 一研究.” 『비교문학』 38집(한국비교문학회, 2006). 5-36.
- 장진엽. “김성일의 『조선국언혁고이(朝鮮國沿革考異)』와 『풍속고이(風俗考異)』에 대한 재고.” 『열상고전연구』 67(2019). 7-50.
- 하우봉. “김성일의 예사상과 일본인식.” 『열상고전연구』 67(2019). 179-227.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 CHUN-Ro. 1991. *OHSANJIP*. KOREA LITERARY COLLECTION No 61. Institute of Korean Classics Translation.
- Goo, Bon-Hyun. 2003. “Cha, Chun ro’s Poem works.” *Association Of Cino-Korean Poetry*, 8: 31-58.
- Ha, Woo-bong. 2019. “Kim Seongil’s Ideology of Rite and Recognition of Japan.” *Yeol-sang Journal of Classical Studies*, 67: 179-227.
- Jang, Jin-Youp. 2019. “A Reexamination of Kim Sŏng-il’s “A Clarification of Chosŏn’s

- History” and “A Clarification of Folk Customs.” *Yeol-sang Journal of Classical Studies*, 67: 7-50.
- Jung, Yoon-Mock. 2006. *CHUNGPOONGJAJIP*. NEW KOREA LITERARY COLLECTION No 26. Institute of Korean Classics Translation.
- Kim, Jun-Dong. 2018. *A Bibliographical Analysis of Old Literatures in Namak Head House (南嶽宗宅), Uiseong Kim Clan*. a master's degree thesis of KNU.
- Kim, Sung-Il. 1989. *HAKBONGJIP*. KOREA LITERARY COLLECTION No 48. Institute of Korean Classics Translation.
- Kim, Sung-Tack. 1998. *JESANJIP*. KOREA LITERARY COLLECTION No 206. Institute of Korean Classics Translation.
- Kim, Taeck-Roung. *JOSUNGDANGJIP*.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Kim, Young. 1991. *UNCHUNJIP*. KOREA LITERARY COLLECTION No 63. Institute of Korean Classics Translation.
- Kim, Young-Si. 2009. “Life and scholarship of Namsck KimBok il.” *DongYangYeiHak*. 22: 151-188.
- Li, Ho-Min. 1990. *DHBONGJIP*. KOREA LITERARY COLLECTION No 56. Institute of Korean Classics Translation.
- Lim, Jun Chul. 2006. “The Reception and Variation of “Terrapin(鼈)” image(意象) of Li bai(李白) in the poems of Cha Cheon-Ro(車天輅).” *COMPARATIVE LITERATURE*, 38: 5-36.
- Oh, YoungpWon. 2001. “Yack bong Kim Guk il's Literary consciousness and Poem works.” *Toegye Studies and Korean Culture*, 29: 213-230.
- Park, Ihn Ho. 2007. “The Trend of the Wolcheon Groups of Toegye School and Activities of Kim Jung-cheong in the Early Years of the 17th Century.” *Korean studies*, 33: 43-84.
- Shim, Soo-Kyung. 1980. *GUNHANJAPROK*. Seoul: press of Backya.
- Shin, Doo-Wan. 2014. “A study on The Imha-26song(臨河26詠) by Kim Guk-il.” *Journal of Korean literature in Hanmun*, 54: 5-44.
- Sim, Kyung-ho. 2019. “Hakbong Kim Seongil and Japanese Confucianism – focused on his influence on Fujiwara Seika with his air of magnanimity as a Confucian scholar.” *Yeol-sang Journal of Classical Studies*, 67: 137-177.